

고급휘발유, 과연 성능도 고급일까?



'차 오래 타려면 고급휘발유으로 넣으셔야 해요.' 운전자라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고급휘발유는 보통휘발유보다 가격이 더 비싸서 운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보통휘발유를 넣는 것이 보통이다. 차를 생각하면 돈을 더 주고라도 넣어야 할 것만 같은 고급휘발유는 그 이름처럼 정말 내 차에도 '고급' 일까?

삼성화재 다이렉트(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sfdirect)가 고급휘발유와 일반휘발유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 고급휘발유는 '고품질'의 휘발유일까?



고급휘발유는 고품질 휘발유나 더 희귀한 휘발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를 구분하는 기준은 옥탄

가. 즉 옥탄의 수치(octane rating)이다. 미국 기준으로 Regular(일반휘발유) 휘발유의 옥탄은 87이며, 89~90이면 미드그레이드(Midgrade, Plus) 휘발유, 91~94 이면 Premium(고급휘발유, Super Unleaded)로 구분된다. 옥탄가는 휘발유가 연소하면서 노킹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낸 수치로 숫자가 높을수록 저항성이 강하다. 즉, 고급휘발유란 절 높은 휘발유가 아닌 옥

탄 비율이 높아 노킹 현상이 덜 발생하는 휘발유인 것이다.

■ 노킹 현상(knocking)이란?

휘발유 엔진은 휘발유와 공기의 혼합 가스를 압축한 후 점화 플러그에서 스파크를 일으켜 폭발시킨다. 그런즉 압축 도중 자연 발화되어 정상 시점보다 먼저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연료의 조기 착화 이후, 추가로 스파크로 인한 폭발이 한 번 더 일어날 때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다고 해서 '노킹' 현상이라고 한다.

■ 차종에 관계없이 고급휘발유를 주유하면 좋을까?

고급휘발유와 일반휘발유의 차이에 대해 알고 난 후에는 노킹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고급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권장 유종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엔진 설계를 한다. 즉, 고급휘발유를 권장하는 차량에만 고급휘발유를 주유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차량은 일반휘발유로 주유해도 아무 이상 없다.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 자동차 = 고급휘발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고급휘발유가 필요한 차량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고출력 차량'이다. 주로 압축비가 높거나 고압의 공기 또는 연료가 주입되는 엔진이 장착된 차량이다. 이런 엔진들이 프리미엄 브

랜드 자동차나 스포츠카, 대형 세단 등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비싼 자동차에는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그렇다면 내 차가 고급휘발유 주유 차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급휘발유 주유 차량 여부는 보통 주유구 커버에 표기되어 있다. 300HP(마력) 이상의 고출력 차량의 경우 오너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일반차량에 고급휘발유를 넣으면 성능이 좋아질까?

일반차량은 고급휘발유를 사용해도 출력 상승률이나 연비 효과가 미미하다. 사용 목적 자체가 고출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휘발유를 사용해도 노킹 현상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억제된 출력을 내게 설계되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고급휘발유를 넣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단, 고급휘발유 차종에는 고급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급 휘발유 차종은 대부분 고출력을 컨셉으로 하고 있어 일반휘발유 주유 시 노킹현상 발생률이 높다. 그래서 옥탄 비율이 높은 고급휘발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차량은 고급휘발유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엔진 마모라는 큰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사장님,
힘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께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 (323) 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